

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경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양종욱 대건 안드레아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966-8206)
사무실: 703-968-3010
팩스: 703-968-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목,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5,5) · 희망의 순례자들



동중부 남성20차 꾸르실로 교육

연중 제 15 주일

제 1 독 서

신명 30,10-14 | 그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화 답 송

시편 69:14, 17, 30-31, 33-34, 36, 37

○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제 2 독 서

콜로새1,15-20 |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복음 환 호 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 음

루카10,25-37 |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작은 우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멋진 대답을 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라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옳은 대답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은 이 율법교사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비유를 이야기 해 주십니다. 강도 당한 이를 사제도 레위인도 지나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 그것도 잘 도와 주었다.

아마도 당시에 듣는 이들은 경악스러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정말 싫은, 정말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는 이들과, 저 강아지 같은 사람들과라고 생각한 사마리아인들이 어려운 이를 돕는 다니. 저 비유에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평범한 유대인이 나왔다면 더 자연스러운 비유였을 겁니다. 평범한 유대인이 어려운 이를 도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비유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의 등장으로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만 대답합니다. 아직도 그에게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앞서 이야기 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도 거짓이 되고 맙니다.

이웃이라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러할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내 이웃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랑도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저 사람은 아니고, 이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이웃이고,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 율법교사와 다르게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넓은 사랑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갇혀있는, 제한이 있는, 우물안에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증오하는 이들도, 꺼려하는 이들도 얼굴조차 보기 싫은 아들도 내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한이 있는 단어가 아니었나 봅니다.

이번 주간은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을 조금 벗어 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있는 저 인간이 바로 내 이웃이라고 주님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마음속에서의 동의를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함에도 입에서라도 먼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박준혁 프란치스코 신부
/ 캐나다 밴쿠버 교포사목

1면 표지 사진 설명

동중부 남성 제20차 꾸르실료 교육을 마치고...

지난 7월 3일부터 6일까지, 메릴랜드에 위치한 Bon Secours 수도원에서 동중부 남성 제20차 꾸르실료 교육이 은총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꾸르실료에는 총 22명의 형제님들이 참여하였으며, MD 온리 성당에서 12명, VA 알링턴 성당에서 8명, 피츠버그와 리치먼드 지역에서 각각 1명씩 함께하였습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깊은 영적 체험을 나누고 무사히 교육을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이들이 앞으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놀랍고도 아름답습니다!”

1. 2차 헌금 안내

- * 오늘 미사중에는 알링턴 교구가 선정, 지원하는 세계 선교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알바니아 선교를 위해 오희서 바오로 신부님께서 오셔서 미사와 강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CFIC 수도회에서 알바니아 선교를 위한 헌금이며 선교 활동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arlingtonmissions.org/mission/cfic-mission-in-albania/>
- * 이 웹사이트에서 직접 도네이션 하셔도 됩니다.
<https://arlingtonmissions.org/mission/cfic-mission-in-albania/>
- * 다음 주일 (7월 20일) 미사 중에는 텍사스주 홍수 피해 구호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텍사스주 홍수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교구 2차 헌금에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연중 15주간 모임 안내

- * 7월 13일(일): 꼬미시움 월례회(오전 11:30)
K of C 월례회의(오전 9:30)
예비신자와 회장단과의 만남(오전 11:30)

3. 연중 16주간 모임 안내

- * 7월 20일(일): 하상회, 안나회(오전 11:30)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 * 7월 25일(금): 울뜨레아 회합(저녁 8:00)
바오로회 자매 모임(저녁 8:00)
베드로회 자매 모임 (저녁 8:00)

4. 2025년 레지오 피정

- * 일시 : 7월 25일(금) - 27일(일)
- * 강사 : 배하정 다니엘 신부
- * 피정 주제 : "아베 마리아! 하렐하나이다."
- * 장소 : Washington D. C 가톨릭 대학
- * 레지오 단원들을 위한 피정이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분들께서는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볼티모어 성당 신축 기금 위해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지난 6월 28일(토)-29일(일)에 볼티모어 성당에서 성당 신축 기금 마련 위한 2차 헌금과 약정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많은 관심으로 볼티모어 성당 신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도움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도움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약정 인원 : 234명

◆ 약정 금액 : \$140,014

◆ 2차 헌금 : \$10,957

- * 이웃 사랑을 실천해주신 모든 교우분들의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 신부로서 어려운 부탁을 드린 것이지만 흔쾌히 넉넉한 마음으로 큰 사랑 나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 교구 다문화 행사

- * 일시 : 2025년 7월 18일 (금) 오후 6:30
- * 미사 : 마이클 버빗지 주교님과 사제단 공동 집전
- * 장소 : St. Thomas More 주교좌 성당,
3901 Cathedral Lane, Arlington, VA
- * 미사 후 리셉션(다민족 음식, 공연)
- * 교구 다문화국에서 주최하는 다민족 공동체 미사를 마이클 버빗지 주교님을 모시고 미사와 각국의 문화 공연, 음식 나누기 등 가톨릭 신앙의 풍부한 다양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7월 6일 (연중 제 14주일)

봉헌금	\$ 7,916.00
교우금	\$11,500.00
교우금 (신용카드)	\$ 2,960.00
감사헌금	\$ 800.00
온라인 봉헌	\$ 4,440.00
합계	\$27,616.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오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 2025년 7월 17일(목) 오후 5:00 - 6:00
- 2025년 7월 18일(금) 저녁 8:00 - 9:00
- 2025년 7월 20일(일) 오전 6:00 - 7:00
- 1. 가톨릭 소식 2. 주일강론
- 3. 가톨릭 영상교리 : 교해성사
- 4. 미니 시리즈 순례 : 제 10회 파티마
성모님과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를
만나러 가는 길

교중미사 예물봉헌

7/13 이번주	버크 4반
7/20 다음주	애난데일 구역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 8. 과달루페 성모님 성지 순례 재모임 안내

- * 일시: 7월 27일(일) 11:30
- * 과달루페 성모님 성지 순례를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7월 27일(일) 교중 미사 후에 친교실(A-1,2)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준비사항 등의 안내를 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성지 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신앙을 돌아보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출발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순례 중에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녀온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 가느냐입니다.

▣ 9. CYO Summer Camp

- * CYO Summer Camp가 "희망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은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 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13) 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31일(목)부터 8월 3일(일)까지 Camp Round Meadow에서 있겠습니다.
- 학생들이 이 캠프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10. 동중부 KCLC 8박 9일 침묵 피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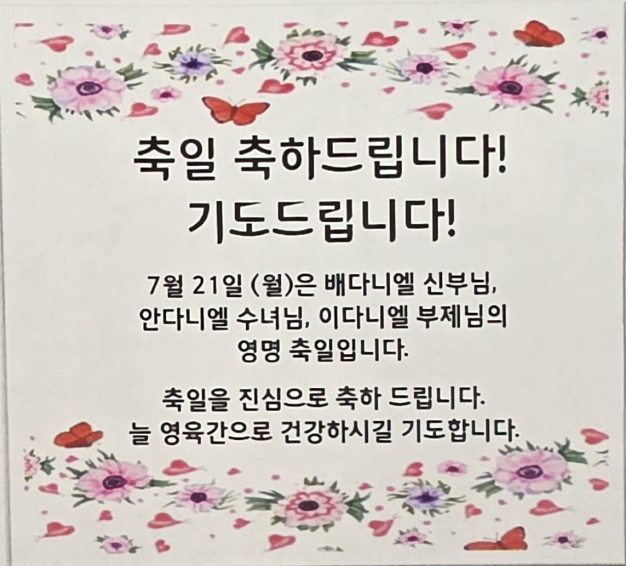
- * 일시: 8월 1일 (금)-8월 9일 (토)
- * 장소: Loyola Retreat House MD
- * 지도 신부님: 최재석 프란치스코
- * 신청: 7월 20일 (일)까지, 피정비 \$ 985
- * 피정 주제: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 * 문의: 김영옥 실비아 (703)969-5067, pig20147@yahoo.com, 이데레사 (571)224-2888, theresahardaway1957@gmail.com
- * 개인 피정이라도 본당 이름으로 참석하시는 것이니, 출발 전 본당 신부님의 축복을 받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1. 주일학교 CCD Summer Camp

- * 일시: 8월 16일(토) 오전 9:30-오후 5:00
- * 장소: 성당, 친교실, 하상관, 체육관
- * 대상: Rising 1학년-Rising 8학년
- * 등록비: 한 학생당 \$30
- * 등록 기간: 8월 10일(일)까지, 주일 2시 미사 후, 성당 입구
- * 문의: 임형준 이레네오 교감 (703)624-8196
- * 주일학교 여름 캠프가 있는 날에는 성당의 모든 것을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내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외에 다른 교우분들께서는 성당과 하상관 친교실 사용을 오후 6시 까지 하실 수 없습니다.

▣ 12. 하상 한국 학교 종강식

- * 일시: 7월 25일(금) 오후 1:30
- * 하상 한국 학교 여름학기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 텍사스 홍수 피해자를 위한 기도와 나눔"

저는 알링턴 교구의 교우들과 함께 독립기념일 주말, 중앙 텍사스를 강타한 갑작스럽고 재앙적인 홍수로 인해 목숨을 잃은 모든 희생자들, 아직 실종된 분들, 그리고 이 재난으로 삶에 영향을 받은 모든 분들을 위해 깊은 애도와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응급 구조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었지만, 과달루페 강의 홍수는 여름 캠프인 '캠프 미스틱'에 머물던 수많은 어린이들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이번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큰 고통과 상실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위로를 느낍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이 슬픔의 시기에 중앙 텍사스의 공동체에 위로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알링턴 교구의 교우들과 모든 선의의 마음을 지닌 분들에게 미국 가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 USA)와 중부 텍사스 현지의 다양한 단체 및 구호 활동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웃과 함께하며, 우리가 보여주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 큰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알링턴 교구장 마이클 버빗지 주교